

## OC 교계 연합, 튀르키예 구호 성금 모금 전개

OC 교계 및 사회 단체 연합(이하 OC 연합)은 지난 13일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긴급 구호와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모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OC 연합은 튀르키예·시리아 긴급구호 성금 모금에 각 오펜지카운티 지역 교회와 단체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모아진 기금은 1센트도 빠지지 않고 성금 전액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무너진 교회 재건과 지역 주민 회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OC 연합은 구호 성금 모금 창구를 OC 교협 계좌로 일원화하고, 남가주 지역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 선교사들 및 공신력 있는 선교기관에서 선교사들을 추천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OC 연합은 이번 성금 모금 운동의 대표로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를 추대하고 1차 성금 모금을 4월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성금 모금의 모든 진행과정과 내역은 신문지상에 발표하기로 했으며, 4월 혹은 5월 중 선교 대표단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1차 긴급 구호 목표 모금액은 10만 달러.

이번 모금에는 OC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OC 목사회, OC 여성목사회, OC장로협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진행된 튀르키예 긴급 구호 및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모금 기자회견. 좌부터 국지혜 전도사, 윤우경 이사장, 김기동 목사, 심상은 목사, 박재만 목사, 김수연 대표, 이경신 목사 ©기독일보

의회, OC 전도회연합회, 은혜한인교회, 갈보리선교교회, 청교도신앙회복운동, 나침반교회, 미라클포인트교회, 선한뜻교회, 세리토스 총만교회, 효사랑 선교회, 시민권자협회, 세계기독교 어머니 기도회, Refounder's United,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서남부지방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구호 기금 동참은 개인과 교회, 기업과 단

체, 기관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심상은 목사 714-722-4805 혹은 OC 전도회연합회 윤우경 이사장 714-873-9164 로 하면 된다.

심상은 목사는 "튀르키예는 6.25 전쟁에서 UN 지원군을 파병해 대한민국을 공산화

로부터 지켰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를 위해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던 나라"라며 "연쇄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를 향해 기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할 때"라고 모금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OC교협 증거회장 김기동 목사는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OC 교계 기관이 연합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며 "엄청난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OC교회와 단체가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라고 참여를 촉구했다.

OC교협 부회장 박재만 목사는 "전체 인구의 99% 이상이 무슬림인 그 땅에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OC 한인여성목사회 이경신 목사는 "전세계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 美 바이든 “국가적 낙태 금지법, 거부권 행사할 것”

### 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 비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연두교서에서 국가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도브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낙태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님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각 주에 반환했다.

바이든은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며, 양원 의원들에게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

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의회는 빼앗긴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통령과 저는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과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2개 이상의 주에서 극단적인 낙태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회가 전국적인 (낙태) 금지령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바이든은 또 동성결혼 합법화를 성문화한 ‘결혼 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의 초당적 통과를 촉구하고, 의회가 연방 인권 보호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추가하는 평등법(Equality Act)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악관

서명한 300개의 초당적 법안을 소개하며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

연두교서가 끝난 직후,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리틀록에 있는 주지사 관저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은 국민들을 실

했다.

그는 “성소수자 미국인, 특히 트랜스젠더 청년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초당적 평등법도 통과시켜야”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의회와 그의 행정부를 초당적 성과로 연결하고, 자신이 서명한 300개의 초당적 법안을 소개하며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

연두교서가 끝난 직후,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리틀록에 있는 주지사 관저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은 국민들을 실

망시켰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매일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보다 환상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공화당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샌더스 주지사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단순히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싸우고 싶지도 않은 좌익 문화 전쟁 속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미국의 급진 좌파들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힘들게 번 돈에 불을 붙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신은 높은 휘발유 값과 텅 빈 식료품 선반에 놀리고, 아이들은 인종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도록 배운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현금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로프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1세기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될 이번 지진은 2월12일 현재 3만7천여명의 사망자와 수 백만명의 부상자, 수 백만명의 이재민을 기록하고 있으며2십여만명이 여전히 매몰 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현지주민들에게 구호금이 직접 전달 될 수 있도록 모금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이슬람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오펜지카운티 교계가 아래와같이 마음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모금액 전액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남가주 교회와 성도님들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모금참여 방법** : 개인, 교회, 기업과 단체, 기관별 참여가 가능합니다. (Tax deductible)  
**Payable to** : The Council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in Orange County (KCCOC)  
메모란에 c/o Turkey & Syria (터키와 시리아) 를 반드시 기록해 주십시오.  
**Mail to** :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1. 제1차 긴급구호기금 모금원 \$100,000 전액전달
2. 4월/5월 중 선교대표단이 현지를 직접방문, 교회재건과 지역주민 회복에 사용하게됨
3. 현지선교사 선정은 참여교회가 후원하는 현지 선교사와 공신력있는 선교기관의 추천을 통해
4. 현금접수 진행사항과 현지선교사 추천사항은 미디어기관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될 예정

**모금에 관한 문의** : (714) 722-4805 심상은목사 (714)873-9164 윤우경 홍보위원장

준비위원장 : 심상은목사(갈보리선교교회/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준비위원 : 박재만, 추석근, 이영선, 강순영, 안신기, 김영찬, 황선철, 김용진, 김영수, 황선철, 윤우경, 신용, 민김, 이경신, 이선자, 김수연, 박용일 등 (추가 중)

**주최** :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장로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공동주최** : 은혜한인교회, 갈보리선교교회, 청교도신앙회복운동, 미라클포인트교회, 선한뜻교회, 세리토스총만교회, 효사랑선교회, 시민권자협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리파운더스유나이티드,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서남부지방회, CBMC(남가주연합회, 가든그로브지회) 등등 (계속 접수 중)

**후원미디어기관**: 중앙일보, 한국일보, 미주복음방송, CHTV,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찬투데이, 크리스천윌리, 크리스천헤럴드, 사람과사회, 기독일보, 크리스천비전 등 (추가 확인 중)

**Pray for Turkey & Syria**

**터키와 시리아를 위한 제1차 긴급구호기금**



#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 ‘좋은 성품’에 달렸지요”

## 미주좋은나무성품학교 플러튼 1기 부모교육 세미나 개최

좋은나무성품학교(대표 이영숙 박사)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부모 및 다음세대 교육자를 대상으로 남가주 플러튼에서 제1기 좋은성품 부모교육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영숙 박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여는 부모 성품의 중요성 △자녀와 소통하는 성품 대화의 비결/ 연령별 대화 요령 △성품 대화의 준비 △성품 대화의 기술 등을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쉬운 좋은 성품 대화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영숙 박사는 “앞으로 AI(인공지능)와 공존해 살아야 할 다음세대들에 필요한 것은, 지식을 강조하는 스펙 교육 보다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품 교육”이라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참된 유산은 ‘좋은 성품’이고,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는 ‘성품 형성’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미주좋은나무성품학교 플러튼 제1기 부모교육 세미나 수료자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이 박사는 “다음세대가 위기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 성격적 가치관이

그들의 가치관이 돼야 한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키워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영숙 박사는 “좋은나무성품학교의 12가지 성품교육은 좋은 성품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사역”이라며 “하나님을 닮아

가는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이것이 다음 세대들의 세계관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2005년 한국에서 좋은나무성품학교를 설립한 이영숙 박사는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공감인지능력)과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분별력)를 ‘12성품교육’으로 체계화 했으며, 태아부터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에 이어 시니어 성품 교육까지 좋은 성품의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좋은나무성품학교는 2007년 뉴욕-뉴저지 성품세미나를 시작으로 워싱턴, 알바인, 애틀랜타, LA, 산호세 등에서 매년 세미나와 지도자과정을 진행해오다 2019년에는 ‘다음 세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미주에도 좋은나무 성품 학교 법인 ‘굿트리USA’를 설립해 부모와 교사, 목회자를 위한 성품세미나와 온·오프라인 성품교육을 실시해 왔다. 최근에는 미주 법인을 남가주 플러튼으로 이전해 남가주 지역에서 성품교육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김동욱 기자

## 굿네이버스, 튀르키예·시리아 위해 100만 달러 긴급 구호 실시



규모 7.8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현장 ©굿네이버스 제공

굿네이버스가 규모 7.8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아동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1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펼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Gaziantep)에서 약 33km 떨어진 지역에서 7.8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이후 카라만 마라슈(Kahramanmaraş) 북북동쪽 59km 지점에서 규모 7.5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다.

2월7일 외신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친 강진과 80차례 넘게 발생한 여진으로 튀르키예는 물론 인접한 시리아 국경까지 피해가 발생하여 최소 1만 6,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굿네이버스는 현지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긴급구호단 현장조사팀을 지진 피해 지역에 파견하고, 1차적으로 임시 보호소를 중심으로 식량키트 및 담요 등의 보은물

품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만달러 규모의 긴급구호 활동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민호 굿네이버스 글로벌 파트너십 센터 사무총장은 “고통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을 튀르키예 아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 간다는 굿네이버스의 첫번째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튀르키예 아동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홈페이지와 <https://www.kr.goodneighbors.us/turkiye-er> 에서 튀르키예 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문의: 844-357-7797

김동욱 기자

## “이민교회 일으켜 세운다”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



지난해 4월에 열렸던 제2회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

### 오는 3월 27일(월)~30일(목) 투산영락교회서 개최

‘이민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프로젝트 제3회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3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투산영락교회에서 열린다.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는 한인 인구가 매우 적은 아리조나 투산 지역에서 지난 20여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올 수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 동역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됐다.

2022년 제2회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동부와 서부, 알라스카까지 미 전역에

서 30여명의 목회자와 사모가 참석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교단을 막론하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전도와 부흥의 이론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나아가 할 지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투산영락교회 “팬데믹을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 애쓰는 목회자들에게 함께 방법을 모색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초대의를 말했다.

세미나에 관한 문의는 전화 520-390-4447, 520-909-0187로 하면 된다.

## 제6회 캘리포니아



# 머슴교회 만나며 사랑하며 세미나

일정: 2023년 3월 13일(월) - 15일(수)

주관: 국제 만사인

장소 & 문의: 순전한 교회, 이진환 목사

2101 W. Crescent Ave.#K Ahaheim, CA 92801  
714-469-2220

## 초대합니다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며 동행, 동역할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모십니다.

왜 머슴교회 세미나 인가?

강사: 송영선 목사 (만사인 대표, 빌립보교회 원로)

제자훈련이란 컨셉이 심한 도전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받고도 예수의 제자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 무엇이 문제인가? ✓ 어떻게 “제자훈련”을 개혁 할 수 있는가?
- ✓ 건강한 교회의 모형은 무엇인가? ✓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 10가지 가치 위에 세운 빌립보교회

‘머슴교회’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빌립보교회(Church of Philipp)의 비전과 사명, 추구하는 가치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포도주는 세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대로 세 포도주인 복음은 언제나 새 부대인 가치관과 문화에 담아야 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교회 문화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발견한 10가지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직 예수
2. 머슴의 도
3. 한 영혼의 귀중함
4. 목양 우선
5. 과정 중심
6. 평신도 사역
7. 두 날개의 교회
8.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
9. 안팎이 똑같게
10. 그월 수도 있지

### 머슴교회 세미나 신청자격

1. 머슴교회 열가지 가치관과 원리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리더
2. 제자훈련을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회복의 방법으로 삼는 리더
3. 평신도 동역자를 양육과 재생산의 목양자로 세우기 원하는 리더
4. 부교역자나 평신도 리더는 담임목사와 함께 등록 가능 (인원 제한 있음)

등록비: \$150

등록 마감: 2월 21일까지

[mansain.org](http://mansain.org)

# 기쁜우리교회 창립 6주년 감사 예배 드려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지난 12일(주일) 창립 6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시무장로 2명, 시무안수집사 1명, 추대 장로 3명, 추대 권사 7명 등 13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김경진牧사는 “산통과 해산의 기쁨으로 시작된 기쁜우리교회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이었다”면서 “팬데믹이란 초유의 상황에서도 함께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드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의 헌신으로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해주신 기쁜우리교회 성도들께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날 1부 예배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김경진 목사의 인도로 서지철 장로의 대표 기도 후에 박희민 목사가 집안 25장 13절을 본문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사자와 충성된 성도들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서 “충성은 참되고 신실하며 믿음으

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삶을 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많은 이들의 감증을 해결해 주셨듯이 자기부인의 삶과 자신의 십자가의 지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많은 감증 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자”고 덧붙였다.

이어진 봉헌 시간에 김주혜 집사가 “기쁨 부르심” 봉헌송을 부른 후 장로, 안수집사, 권사은퇴식이 진행됐다.

김경진 목사가 은퇴자를 소개하고, 은퇴패 수여 및 은퇴자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장로, 안수집사 임직식은 김경진 목사의 인도로 임직자 소개, 임직자 서약, 안수기도, 약수례,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경진 목사의 인도로 추대 장로, 추대 권사 추대식은 추대자 소개와, 추대 선언, 축복 안수기도, 약수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홍민성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송으로 불러 축하했고 송정명 목사(미주성



기쁜우리교회 창립 6주년 감사 예배 및 은퇴·임직식 드려 ©기독교일보

시화 공동대표회장)와, 스티브 위비(GPC 교회 담임)의 축사 후에 교회가 임직자와 추대자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 이어 오승일 장로가 임직자와 추대자가 교회에게 기념품을 전달했고, 오승일 장로가 답사를 전했다.

오 장로는 “주님께서 힘 주셔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리라 믿는다”며 “더욱 낮아지고 순

종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예배는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기쁜우리교회는 심각한 지진피해를 당한 튀르키예 교회와 현지 파송 선교사를 돕기 위해 긴급하게 3만불을 모금해서 보낼 예정이다. 조영한 기자

## SWM선교회, 튀르키예 긴급 지진 재난 성금 5만 달러 지원

SWM선교회(국제대표 김진영 선교사, 이사장 손경일 목사)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대지진 긴급 재난 기금 5만 달러를 지원한다.

그동안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의 현지교회 및 사역자들과의 신뢰를 쌓아온 SWM선교회는 튀르키예 개신교회협의회(TEK)와 한인선교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긴급 난민 구제사역을 진행한다.

특히 반군들이 점령하고 있어 국제적인 구호단체들의 진입이 어려운 구호 사각 지대인 시리아 북부지역에도 SWM 선교회와 연결된 시리아난민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구제사역을 진행하게 된다.

SWM선교회는 모든 지진현금의 100%를 지진 구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송금, 발송, 소통, 영상 등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현금의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새벽 4시17분 튀르키예 가지안텨에서 발생한 7.8 지진과 오후 1시23분경 카흐라만라쉬에서 발생한 7.5 지진으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인 아다나, 안디옥, 가지안텨, 카흐르만라쉬, 아디아만, 말라티아, 산르우르프, 수루치, 디아르바크르 등 10개 도시와 시리아 북부를 포함 대한민국의 1.5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역은 투르크민족과 쿠르드민족이 함

께 거주하면서 민족의 갈등이 가장 심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2011년 시리아 내전과 2014년 IS으로부터 피난 온 시리아 난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아프간, 이란, 이라크 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고,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숫자는 2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다나, 다소, 안디옥, 말라티아, 가지안텨, 수루치, 디아르바크르 교회와 그 도시에 있는 시리아난민교회, 이란난민교회, 아프간난민교회, 그리

고 국제교회 등이 이번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영 선교사는 “그 땅과 민족들을 흐드러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능력으로 임하고 확장될 것을 믿는다”며 “계속되는 지진 복구 작업과 더불어 한국교회와 세계 한인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현지교회와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운동과 복음전파 운동을 진행하길 바란다”며 “튀르키예 지역에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 개척 운동이 더욱 힘있게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문의의 714-999-8639



황상호(왼쪽), 우세린(오른쪽) 작가가 두살배기 아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아기도 백일이 지나 자마자 이 탐험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 기자 출신 부부, 캘리포니아 자연온천 주제로 책 펴내

한국에서 방송기자를 하던 부부가 미국으로 이주해 캘리포니아 자연온천을 주제로 책 <오프로드 야생 온천, 미 대륙의 자연 온천을 찾아서>를 펴냈다.

작가 황상호와 우세린은 2017년 LA로 이주한 방송기자 출신 부부다. 부부는 캘리포니아의 자연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자연온천을 중심으로 미국을 탐방했다. 지난 4년 동안 직접 다녀오고 글로 옮긴 온천만 40여 곳. 남가주를 중심으로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주 등지를 다녀왔다. 책 속에는 산 정상에 있는 산타바바라 문

테시토 온천, 누드족이 활동하는 데스밸리 인근 세일린 밸리 온천, 해변 모래에서 온천수가 솟아나는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주 폰타만다 온천 등 다양한 온천이 소개돼 있다.

황상호 작가는 “<오프로드 야생 온천>은 미국에서도 출간된 적 없는 세계 유일한 콘텐츠”라며 “아메리카 원주민의 평화시대였던 야생 온천이 미국 히피의 안식처가 되기까지 그 흔적을 찾아 나선 탐방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야생 온천을 두루 다니며 미국의 현재 모습과 생태계를 비롯해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와 지역사를 탐구하는데 공

을 들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책에는 부부가 여행하며 산길에서 차를 폐차시키고 세리프에게 구조된 이야기와 꿈을 만나 음식물을 빼앗기는 등 진담나는 모험기가 담겨 있다.

황상호 작가는 현재 여행업체 소울트래블러17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세린 작가는 아시아계 권익단체인 남가주 아시아-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에서 한인 법률 서비스 담당자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책은 온라인 서점 케이북스토어(www.kbookstore.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36개월까지 2.90%이자가능

## 2.9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36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36 Months

**NEW 2023 HYUNDAI IONIQ 5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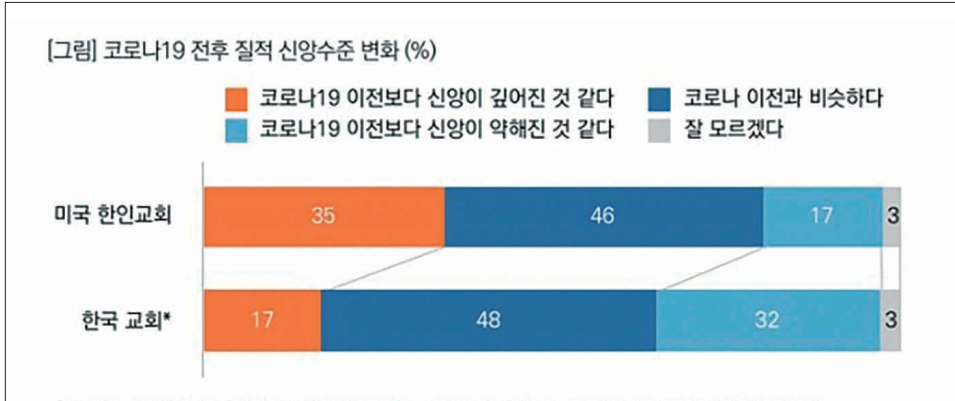
STEVE CHANG 213.235.6825 | PAUL KIM 714.331.3855 | MIKE LEE 714.914.8414 | JUSTIN KIL 213.999.3935 | CHARLEY JEONG 213.276.8959 | JAMES PARK 213.839.3332 |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_hyundai.com](http://www.p_hyundai.com)  
**1-888-644-7114** |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미국 한인교회, 코로나 기간 한국교회보다 신앙 강해져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 코로나 기간 중 미국 한인교회가 한국교회보다 신앙이 더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CTS America'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미국의 뉴욕, 애틀랜타, LA 지역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5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5%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는 17%로 나타났다.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보다 깊어졌다는 비율이 2배 높았다.

반면 지난해 5월 한국 개신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이 17%,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응답이 32%로 반대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코로나를 통해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질적으로 오히려 깊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그 이유로는 교포사회에서 더 친밀할 수밖에 없는 '소그룹'의 결속력에 있는데, '소그룹'은 플로팅 크리스천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목회 전략의 키워드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실제 조사에서는 현재 소그룹에 속해 있다는 비율이 89%로 미국 한인교회 교인 거의 대부분이 소그룹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

뉴욕 LA 등 교인 1,580명 대상  
"코로나 전보다 신앙 깊어져" 35%, "약해져" 17%  
반면 한국교회는 "깊어져" 17%, "약해져" 32%

다. 연구소는 "반면, 한국교회는 소그룹에 속한 비율이 80%로, 미국 한인교회와 비교하면 9%p나 낮았다"고 했다.

미국 한인교회가 한국교회보다 더 고령화 현상예배 참여율 더 높고 주일성수에 보수적인 이민 교회 목사의 조건, 언어보다 영적 자질

이 밖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교회와 비교되는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의 다양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연구소는 "양국 간 교인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교회는 60세 이상이 38%인데 비해, 미국 한인교회는 60세 이상이 53%로 미국이 한국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에게 지난 주일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묻는 결과,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현장예배를 드렸다'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다른 조사에서 이 비율은 69%였다. 연구소는 "한국교회와 비교하면 현장예배 참여율이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다.

'주일성수'에 대해서는 68%가 '주일에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비율은 51%였고, '주일에배를 온라인/가정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의 경우 한국교회보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 한국보다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은 이민 교회 목사가 가져야 할 조건으로 '목회자의 영적 자질'을 가장 많이(77%, 이하 1+2순위) 꼽았다. 이어 '은혜로운 설교' 42%, '목회자의 도덕적 자질' 35%, '이민 사회에 대한 이해' 23% 등의 순이었다. '유창한 언어 능력'은 9%에 불과했다.

또 조사 대상 한인교회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55%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향후 교인 수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지금과 비슷할 것 같다'는 28%, '지금보다 감소할 것 같다'는 15%였다.

김진영 기자

## PK 유하은 양, 빌보드 1위 가수 월드 투어 키보드디스트 합류

베트남 장요나 선교사가 남가주를 방문했다"제가 하는 모든 음악활동을 통로 삼아, 크리스천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하고 싶습니다. 제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하기 원하며, 제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평안이 흘러가게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전 세계 팝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이자 지난해 10월 대표곡 'Bad Habit'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가수 스티브 레이시(Steve Lacy) 월드 투어 키보드 세션에 한국인 유하은(Haeun You) 양이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하은 양은 피아니스트 겸 키보드디스트이며 음악 프로듀서와 작곡가, 음악감독, 편곡가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하은 양은 한국에서 전역장학금으로 성신여대 융합문화예술대학 현대실용음악학과 1기 졸업생으로, 성신여대에서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 수상자인 녹음 엔지니어 강효민, 그룹 '어떤날' 출신 기타리스트로 영화 <왕의 남자>, <괴물> 등의 OST를 제작한 음악가 이병우, 영화음악가이자 푸디토리움(예명)으로 활동중인 김정범 등에게

사사받았다. 또 버클리 음대 아시아 장학생 투어를 통해 장학생으로 선발돼 학업과 연주를 이어갔다.

하은 양은 공연과 작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그녀는 미국 대표 유명 심포니 홀 중 하나인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그래미 어워드 수상 지휘자 알니 루쓰(Arne Roth), 유명 비디오 게임 파이널 판타지(Final Fantasy) 오리지널 작곡가 요코 시모무라(Yoko Shimomura, 비디오 게임 Final Fantasy, Super Mario 등 작곡)와 'Distant World: Music from Final Fantasy' 공연에서 연주했다.

특히 스티브 레이시의 뉴욕 서프라이즈 쇼 공연과 월드 투어 'Give You The World'에서 키보드디스트로 연주했다. 미국 대표 토크쇼 중 하나인 The Late Late Show with James Corden(CBS)에서는 미국 디즈니 팝스타 사브리나 카펜터(Sabrina Carpenter) 키보드디스트로 라이브 공연을 했다.

무엇보다 유하은 양은 작은 교회 목회자(유상석 목사)의 자녀이기도 하다. 유 양은 "부모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며 "부모님은 '네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너의 만족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로서 가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하고, 외로움에 사무



유하은 양.

치고 광야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베풀기 위해,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가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재

능을 열심히 단련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유 양은 "이를 위해 제가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해,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 라이브 퍼포먼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연주자와 음악감독이 되기로 했다"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영화음악가가 돼 일하겠다는 뜻을 품고 정진해 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하나님은 제 기대와 계획보다 매번 더 크고 확실하게 이끌어 주셨다. 제 스스로 해낸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며, 제가 더 온전히 믿으며 계속 열심히 해야 함을 알려주셨다"며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대용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폴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국제어바스 USA 이사장  
 (원)남가주 교외임의외 고문 변호사  
 (원)재미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원)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 챗GPT에 ‘설교문’ 쓰게 하고 ‘기도하는 법’ 물었더니...

## 인공지능, 목회에 어느정도 영향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응답을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가 편안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분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의 두려움, 의심, 불안감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

이 내용은 브니엘신학교 총장인 최덕성 박사가 최근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챗(Chat)GPT’에 ‘소명’이라는 주제로 설교문을 작성하라고 시킨 결과 나온 것의 일부다. 영어로 작성된 설교문은 문단 나누기를 포함해 A4 한 장이 조금 못 되는 분량이다. 최 박사에 따르면 이 설교문 작성에 걸린 시간은 단 15초였다.

최 박사가 해당 설교문을 한글로 번역해 SNS에 공유하자, “저도 한번 시험삼아 해봤는데 기가찬다. 웬만한 수준이상이다.” “앞으로 설교자들이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내용에 군더더기 없고 명확하고 핵심이 분명하다.” “울것이 왔다.... 제가, 가장 걱정하고 우

려했던 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챗GPT는 미국 회사인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지난해 12월 1일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뜻하는 말로, ‘딥 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이다. 한마디로 챗GPT와 사람처럼 말을 주고 받을 수 있다. 공개 40일 만에 가입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었고, 지난 한달 전 세계 1억 명이 이상이 이용했다고 한다.

최덕성 박사는 향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목회나 신학교육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어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 박사는 “목회자는 정보 습득 등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정보를 조합할 수 있을 뿐, 인간 영혼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메시지는 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 ◆ 직접 물은 ‘기도하는 방법’

기자가 직접 챗GPT 웹페이지에 접속해 ‘기도하는 방법’(how to pray)을 물었다. 영어로 된 답변은 역시 문단 나누기를 포함해

A4 3분의 2정도 분량이었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대략 15초 정도가 걸렸다. 비교적 길지 않아 전문을 아래 번역해 봤다.

기도는 더 높은 힘(a higher power)과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소통하는 방법이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란 없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해받지 않고 평화로운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라.
2.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혹은 서 있는 등 편안한 자세를 취하라.
3.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몇 분의 심호흡을 하라.
4.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이름이나 용어를 사용해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더 높은 힘을 부르라.
5. 당신의 삶에 주어진 축복과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라.
6. 당신의 희망, 두려움, 걱정을 공유하고, 가르침과 힘, 그리고 지원을 구하라.
7. 그런 후 어떤 반응이나 느낌이 오는지 듣기 위해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8. 더 높은 힘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기도를 마치라.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그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라. 당신은 조용히, 혹은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당신의 생각을 적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더 높은 힘과 소통하는 데 있어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 ◆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은 항상 존재”

조덕영 박사(창조신학연구소 소장)는 “인공지능도 결국 인간이 만든 정보를 수집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과거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인공지능 역시 목회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을 바른 목적으로 선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박사는 “과학기술이 갈수록 고도화 돼 흔히 이야기 하는 ‘특이점’(singularity, 인공지능이 인류 지능을 넘어서는 기점을 의미-편집자 주)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초월로까지 나아갈 순 없다”며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천안시 “언론 보도된 137m 예수상, 허가받은 바 없다”



지난해 12월 관련 착공 감사예배 모습. 오른쪽에 92m 크기의 예수상 축소 모형물도 보인다. © 송경호 기자

천안시에서 (재)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및 예수상 조형물 착공 등과 관련, “건축허가 신청 및 실체가 없는데도 허위 광고성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천안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만 득한 상태이나, 총사업비 1조 800억원이 소요되는 다수 편의시설과 봉안시설이 포함된 기독교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사전분양을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켜 왔다”며 “지난 2018년 10월 (재)한국기독교기념관은 높이 32m의 예수상 건립을 위해 천안시 서북구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했지만, 서북구는 건축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작물로 판단하고 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재)한국기독교기념관의 종교시설 용도 건축허가는 건축물 착공신고 절차를 이

행하지 않아 지난해 4월 4일 취소됐고, 언론 보도된 높이 137m 예수상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업 진행과 관련 투자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발생 및 사업추진 현황 문의 사례가 있어, 분양피해나 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천안시는 앞서 2021년 10월 입장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한국기독교기념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예정지라는 문구와 함께 실체가 없는 확대·과장 광고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해 왔다는 것.

천안시 관계자는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은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로, 기념관 건립 관련한 허가 내용과 예수상 착공 등을 다룬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대용 기자

## 이영훈 목사 “3만 5천 탈북민, 통일 후 北 선교사 될 분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기하성 대표총회장)는 10일 오전 CCMM빌딩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통일연합종교포럼 2월 모임에 참석해 “주체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북한 주민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 뿐”이라며 “갑자기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기독교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통일연합종교포럼은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자’는 취지 아래 여의도순복음교회 주도로 2022년 4월 창립돼 매월 통일 관련 논의와 초청 강연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주체사상은 기독교를 흡수해 뒤늦게 놓은 것으로, 근본 뿌리인 복음을 주민들에게 바로 전파하면 세뇌된 거짓사상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김일성 회고록을 보면 기독교 관련 내용이 유난히 많다. 특히 김

일성 아버지 김형직 장로와 어머니 강반석(磐石, 베드로의 한자 이름) 모두 믿음이 깊었다”며 “통일의 해법을 기독교 복음 전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것은 꿈을 잃지 않고 대비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3만 5천 명의 국내 탈북민들은 통일 후 북한에 선교사로 갈 분들이니 우리가 그분들을 돌봐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공사가 중단된 북한 평양심장병원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별강사로 참석한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북한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주제 강연에서 “북한이 비록 핵무기와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있지 않지만, 젊은 세대는 남한 문화에 푹 빠져 있다”며 “분열의 고착화보다 오히려 통일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대용 기자

## CDTV 미주기독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프로그램 구성: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북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b>원서접수</b>	2022년 11월 1일 마감
<b>지원자격</b>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b>수업기간</b>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b>수업장소</b>	미국 캘리포니아 탈북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mailto: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북” 검색

유튜브: “탈북신학교” 검색



# PCUSA, 美 행정부에 ‘강진’ 피해 시리아 제재 ‘해제’ 촉구

미국장로교(PCUSA)가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리아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바라는 행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PCUSA 총회 사무국 서기인 J. 허버트 넬슨(J. Herbert Nelson) 목사는 7일 성명을 내고 “수십 년 동안 시행된 제재는 특히 2011년 시작된 내전 이후 이미 충격을 받고 빈곤한 인구에게 고통을 더할 뿐”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넬슨 목사는 “제재의 영향으로 지역에서 일하는 파트너의 대한 구호품 전달이 느려지고, 때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몇 달씩 지연되기도 한다”며 “제재를 해제하면 즉각적 비상 사태에 필요한 구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람들이 몇 달 안에 집과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세인트폴 멜카이트 그리스 가톨릭교회에서 한 예배자가 지진 희생자들을 위해 촛불을 밝히고 있다. ©Life on Earth/Paul Jeffrey

그는 “이는 우리 정부가 이 비극에 대응해 다. 우리는 시리아와 그곳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필요에 관심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조치가 될 수 있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 레바논과 이스라엘까지 감지된 규모 7.8의 지진 외에도 현지에서 규모 7.5의 지진을 포함해 수 차례 여진이 발생했다.

터키 남부 가지안테프의 한 주민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러한 감정을 느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요람에 있는 아기처럼 적어도 3번은 아주 세계 흔들렸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시리아는 1979년 공식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2004년과 2011년에 다양한 제재를 받았다.

중동교회협의회(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도 “제재가 반인륜적 범죄로 바뀌지 않도록,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미국에 촉구했다.

강혜진 기자

# 美 남침례회 전 총회장, 동성애 논란에 “후퇴는 안 돼”

### 앤디 스탠리 목사 논란 관련, 진리 침묵·부인하지 말 것 강조

미국 남침례회(SBC) 총회장을 역임했던 유명 목회자가 최근 논란이 된 앤디 스탠리(Andy Stanley) 목사의 동성애자 옹호 발언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성과 젠더의 문제에서 ‘후퇴’해서는 안 되고, 은혜와 진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더럼(Raleigh-Durham) 소재 서밋교회(Summit Church)의 담임이자 전 SBC 총회장인 J. D. 그리어(J. D. Greear) 목사는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TGC)에 게재한 칼럼에서 “기독교인들은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온전히 진실한 사람이셨고, 유일하게 온전히 은혜로운 사람이셨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리어 목사는 “이 두 가지 개념은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분장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일치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들(동성애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포함)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대위임령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비롯,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명하셨다(마 19:3-12)”고 했다.

그리어 목사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불신자들은 적어도 세 가지 이유로 동성애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며 “첫째,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2천 년 동안 이성 결혼의 신성함을 일관되게 믿어 왔다. 둘째,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사람들로 알려져 있으며, 성경을 가볍게 읽는 사람이라도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음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셋째, 미디어는 기독교인들을 편협한 사람으로 묘사하기 위해 청중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의 내용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 선교사들은 때때로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대해 침묵하거나 부인하거나 모호하게 하는 것’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어 목사는 무엇보다 “십자가 설교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다. 그리고 제대로 이해한 회개는 참으로 공격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조건이나 경고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 16:24)고 하셨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과 경쟁하는 모든



J.D. 그리어 목사. ©라이프웨이닷컴 ©lifeway.com

것에서 기꺼이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리어 목사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대해 불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근본주의자들은 은혜 없는 진리를, 자유주의자들은 진리 없는 은혜를 좋아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복음전도자가 되려면 근본주의자보다 더 진실하고 자유주의자보다 더 품위 있게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하

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여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한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로 칼럼을 마무리했다.

“두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됐고, 결혼 관계를 끊었다. 두 여성 중 한 명은 내게 ‘저를 위해 메시지를 바꾸지 않아주셔서 감사하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와 내 파트너 모두에게 항상 분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우리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다’(행 20:27), ‘우리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들을 훈계했다’(행 20:31),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며 달려갈 길을 마쳤다’(딤후 4:7)라고 고백한다”고 했다.

그리어 목사가 쓴 칼럼의 제목은 “동성애 죄를 경시한다면, 다음 세대를 이기지 못할 것”이었다.

한편, 앤디 스탠리 목사의 노스포인트교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그리어 목사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침묵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 미 복음연합, 기독교 변증 위한 켈러센터 출범

### 팀 켈러 목사 “변증 훈련된 젊은 목회자 키울 것”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러 목사.

미국의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TGC)이 목회자, 청년 및 기독교 지도자를 돕기 위해 구상된 ‘문화적 변증을 위한 켈러 센터’(Keller Center for Cultural Apologetics)의 출범을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팀 켈러(Tim Keller) 목사는 최근 영상을 통해 이 센터가 “변화하는 세상을 위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할 새로운 세대의 대담한 전도자와 효과적인 변증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TGC의 공동 설립자이며 뉴욕시 리디머장로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를 담임한 그는 “후기 기독교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인가? 교회는 그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켈러 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후기 기독교 상황에서 전도와 문화적 변증이 가능한, 새로운 세대의 젊은 사상가, 목회자, 지도자를 키울 것”이라고 했다.

켈러 목사는 “새로운 센터가 성공한다면, 새로운 세대의 사상과 학자들이 매우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훌륭한 문화적 변증 방식을 만들고, 교회가 이 내용을 번역할 것”이라며 “켈러 센터가 제작한 콘텐츠를 위한 모든 종류의 플랫폼과 차량

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복음주의 교회의 쇠퇴에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복음주의 교회를 떠나는 원인 중 하나로 “교회가 세속 문화의 이야기와 주장, 메시지로부터 우리 젊은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변증학 훈련이 젊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켈러 목사는 센터가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할 것”이라며 “또한 20년 후, 뒷문이 닫혀서 떠나는 청년보다 교회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켈러 센터가 교회에 변화와 차이를 가져올 희망”이라고 밝혔다.

켈러 센터는 전무이사에 폴린 한센 TGC 콘텐츠 담당 부사장을 선임했으며, 감독은 마이클 그래함 TGC 회장 교문이 맡는다.

김유진 기자

## 기독교 팀 ‘매버릭 시티 뮤직’, 그래미상 최다 부문 수상

미국의 기독교 음악팀인 매버릭 시티 뮤직(Maverick City Music)이 지난 5일 밤 열린 제65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거의 모든 기독교 음악 부문에서 상을 휩쓸며 모든 영광을 하나 님께 돌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6일 보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매버릭 시티 뮤직은 비욘세(Beyoncé)와 함께 가장 많은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매버릭 시티 뮤직과 가스펠의 전설 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은 이날 시상식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베스트 가스펠 퍼포먼스 △베스트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앨범 △베스트 가스펠 앨범 부문이다.

매버릭 시티 뮤직의 나오미 레인(Naomi Raine)은 ‘Kingdom Book One’으로 베스트 가스펠 앨범 부문에서 수상한 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평소에 듣지 못했던 목소리를 높이기도 결정했을 때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 드린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를 위한 이 앨범은 우리가 에버글레이즈 교정 시설에 들어가 수감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던 앨범이었다”며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프랭클린은 앨범의 성공이 가스펠 음악이 여전히 ‘살아있고 좋다’(alive and well)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것이 미래”라고 덧붙였다.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매버릭 시티 뮤직은 4개의 트로피로 비욘세와 함께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는 매버릭시티 뮤직팀. © 유튜브 캡처

가장 많은 상을 받았다고 CP는 전했다. 이로써 이들은 미국 CCM계 강자인 Erica Campbell을 비롯해 King & Country, TobyMac, Anne Wilson, Keith and Kristyn Getty, Chris Tomlin을 이겼다.

팀 멤버인 찬들러 무어(Chandler Moore)는 앨범 ‘Breathe’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앨범으로 베스트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앨범 트로피를 받은 후 “많은 사람들이 숨쉬기가 너무 힘들고 그저 한숨을 돌리는 팬데믹 한 가운데서 이 앨범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와 앨범을 주셨고 사람들이 깊이 호흡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신 이유는 하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호흡이 있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다.

매버릭 시티 뮤직은 소셜 미디어에서 그래미상 수상을 축하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 공간에서 우리를 사용하신 아버지와 항상 우리를 지원해 주신 당신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린다”고 썼다.

김유진 기자

#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후 12:50  
주일예배 2부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자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jrkdk@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아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토요일참기교회 오전 7:30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스크립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저녁 7:30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센타 주일예배 9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8:00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3부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30 / 토 오전 6:00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이석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회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이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일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류광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크로스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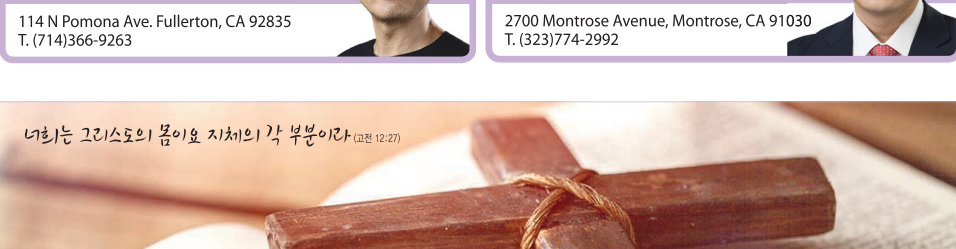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홍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침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체드(오침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중보기도회 오전 6:00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gmail.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명성교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차세대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일)-현장영상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자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ken 고지)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어우러진(ANNA)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기에는 애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교로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2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수-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리타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성경강해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까지)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818) 366-0089 / www.vkum.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토)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909)396-4441 www.gwgm.org

주일 1부 오전 8: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강해 오후 7:00(금)  
유초등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마침까지)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la@hnsla.org

## 美 남침례회 선교부, 올해 1분기 선교사 46명 파송



지난 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코츠 침례교회에서 열린 SBC 선교사 파송 기념식에 46명의 선교사들과 국제선교위원회(IBM) 위원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IMB

미국 남침례회(SBC) 국제선교위원회(IBM)가 올해 1분기에 46명의 전임 선교사 파송을 승인하며, 최근 교단 내 선교사 지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IBM은 지난 1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파송식을 열어 전임 선교사 46명을 축하했다. 이 행사에는 약 450명이 참석했으며, 3600명 이상이 생중계로 시청했다.

IBM은 매년 1~2월과 6월, 9월과 11월경에 총 4번 선교사 파송식을 개최한다. 이번 파송식은 지난 2일 폐막한 이틀간의 IBM 이사회 회의의 일부로 진행됐다.

스콧 레이 IBM 평가 배치 담당 이사는 CP에 보낸 성명에서 "지난주 영예를 안은 선교사의 수가 작년 겨울 임명과 비슷한 규모이며, 최근 몇 년보다 더 많다"고 밝혔다.

IBM의 폴 치트우드 회장은 파송 연설에서 "세계 최대의 문제는 영적 상실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IBM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인 상실감은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크다. 말 그대로 어제보다 오늘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남침례교인들이 문제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해법인 복음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에 없던 기회임을 간파해선 안 된다"고 했다.

IBM 회의는 "교단 내 선교사 및 동원

팀의 참여가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4만3천 명 이상을 기록했다"며 "선교사 지원과 참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IBM 교회 및 캠퍼스 참여 책임자인 크리스 데리는 CP에 보낸 논평에서 선교사 지원이 증가한 요인으로 "IBM 교회 연계(Church Connections) 프로그램"을 꼽았다. 이 프로그램은 약 4만7천 개의 SBC 회원 교회 중 거의 절반이 IBM 선교사와 점점이 부족하다는 보고에 따라 2020년에 시작됐다.

데리는 논평에서 "(선교사 지원)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IBM의 교회 연결 프로그램을 통한 사역에 있다. 각 선교부에 남침례교회의 회원 명부를 할당해, 관계를 연결하고 발전시키는 이니셔티브(Initiative)"라며 "특히 현재 남침례교회 선교 노력의 지원과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않은 교회들과 협력한다"고 전했다.

2021년 9월, IBM은 모든 선교사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며, 12세 이상의 선교사 자녀도 접종을 받도록 권장했다. IBM의 코로나19 백신 명령은 지난 6월 많은 국가에서 백신 접종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일부 철회되었고, 선교사 모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지난 9월, IBM은 선교사 후보자 지원이 1100명을 넘었으며,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고했다.

김유진 기자

## PCUSA 목사 후보 시험서 '폭력적 성구 거부' 등 문제제기

PCCEC "사사기 19장, 성폭력 트라우마 야기" 주장에 반박... "현실적 문제"

미국장로교(PCUSA)의 일부 목회자가 목사고시 시험 문제에서 폭력성을 띤 성경 구절이 출제되었다며 "해악을 끼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목사 후보생 시험을 관할하는 PCUSA 상설 '장로교 후보자 시험 협력위원회'(PCCEC)는 최근 성경 구절을 발췌하여 해석하는 목사고시 문제를 출제했다.

주석 시험에는 집단 성폭행과 침의 죽음이 이스라엘 지파간 전쟁으로 이어졌던 사사기 19장이 지문으로 출제됐다. 그러나 일부 응시자들은 성적 폭력의 내용을 담은 해당 성구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위험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성폭행 피해를 경험했던 오클라호마주의 엘라나 케펠 레비 목사는 온라인 서명 웹사이트인 '체인지.org'(Change.org)에 탄원서를 올렸으며, 7일 기준 1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레비 목사는 청원글에서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지만, 극단적인 폭력과 성폭력을 다룬 이야기는 응시자와 독자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폭력과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은 아니더라도, 수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고, 집중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트라우마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분의 명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시험이 두려움과 해를 끼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우리는 PCCEC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감독할 것에 동의하는 위원회의 약속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PCCEC 의장인 로버트 라우리 목사는 지난주 장로교뉴스서비스(PNS)와의 인터뷰에서 사사기 19장이 "오늘날 교회 사역을 위해 미래의 목회자를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에 따라 선별됐다"고 주장했다.

라우리 목사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목회자들이 성폭력과 폭력을 포함해, 20년이나 25년 전에는 회자되지 않았을 문제에 대해 그들이 섬기는 교구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성경은 인류가 경험한 풍부한 내용을 다루는 풍성한 이야기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는 목사고시의 요점이 "후보자들을 초대하여, 그들이 했던 준비와 목회 소명이 습득한 지식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안수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집단지성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가정정의센터(Center for Family Justice)는 미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여성은 4명 중 1명, 남성은 6명 중 1명이 일생동안 성적 학대를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PCCEC는 오는 3월 열리는 장로교협력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 기독교 단체들, 지진 참사 현장서 '예수' 이름으로 구호활동



'사마리아인의 지갑'이 지진 피해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마리아인퍼스 코리아 제공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리아와 터키(튀르키예) 최전선에서 기독교 자선 단체들이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두 번의 지진과 최소 120회의 여진으로 터키와 시리아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2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 같은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으며 영하의 온도 속에서 잔해 아래에서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구호단체인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은 이번 주 후반에 터키에 52개의 병상이 있는 응급 야전병원과 최소 75명의 직원을 배치해 참사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즉각적인 의료적 필요를 해결한다고 발표했다. 병원에는 두 개의 응급 수술실이 있다고. 이 단체는 또한 긴급히 필요한 물품을 터키로 공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우리의 대응이 계속 진전됨에 따라 추가로 재난 지원 전문가와 물품을 이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며 "고통받는 많은 가족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는 우리 팀과

파트너를 위한 기도에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독교 구호단체인 ACN(Aid to the Church in Need)에 따르면, 참화 속에서 많은 가족들이 교회, 수녀원, 그리고 병원에서 잠을 청했다고 한다.

알레포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가톨릭 병원의 앤 마리 가농 소장은 병원이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ACN에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비록 병원이 지진에 의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구조적 손상을 입은 만큼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호활동을 펼치는 다른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로는 First Hope Association, 월드비전(World Vision) 및 Send Relief가 있다고 한다.

월드비전은 성명을 통해 "가장 취약한 어린이와 가족을 돕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임시 거처, 난방기, 깨끗한 물, 절실히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한편 중동교회협의회(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는 "비극적 참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 영 성공회 총회, 8시간 격론 끝 '동성 커플 축복안' 통과



©영국성공회 유튜브

영국성공회 총회는 9일 8시간 이상의 격론 끝에 '동성 커플 축복'이 포함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동성 축복을 제안하는 것 외에도 "성소수자들을 환영하지 못했던 교회의 실패와, 그들이 교회에서 경험했고 계속 경험하는 피해를 애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다만 결혼에 관한 교리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수정안은 많은 제안들 중 유일하게 주교들의 지지를 받아 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수정안에 대한 투표는 주교, 성직자, 평신도 250명의 찬성, 181명의 반대, 10명의 기권으로 통과됐다. 주교들은 찬성 36명, 반대 4명, 기권 2명, 성직자는 찬성 111명, 반대 85명, 기권 3명, 평신도는 찬성 103명, 반대 92명, 기권 5명을 각각 기록했다.

주교회의는 향후 몇 달 동안 '사랑과 믿음의 기도'를 가다듬고 독신 생활 등의 이슈를 다룰 새로운 사목 지침을 준비해 7월 총회 전 제출할 계획이다.

통과된 수정안은 차체스터 교구의 앤드류 콘스 목사가 제시했는데, 그는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포괄적이시지만 성과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 극단적으로 보수적이시다"라고 했다.

그는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문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환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적으로 금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을 기쁘게 축복해줄 수 있지만, 우리 중 일부는 이를 고통스

러워할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성적인 측면에서 죄라고 말씀하신 관계를 축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본안이 통과된 후, 사라 멀러리(Sarah Mullally) 런던 주교는 "심의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총회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일치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에서 스티븐 코트렐 요크 대주교는 "기도는 선택 사항이다. 동성 커플에 기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루로외 필립 마운스토펜(Philip Mounstephen) 주교는 "수정된 동의안을 지지하는 데 다소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를 지지한 이유는 결혼 교리에 대한 서약이 항상 편안하게 유지되지 않지만 이를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였다"고 했다.

수정안을 강력히 반대한 런던 교구의 테미토프 아이위(Temitope Aiwo) 주교는 "이것이 나머지 성공회 공동체에 '너무 큰 대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여정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 권위, 진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본질적으로 영국성공회를 역사적 공식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방향이라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음주의자들은 토론 전날인 8일, 총회에 이번 제안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옥스퍼드에 위치한 세인트에베 교회의 본 로버츠(Vaughan Roberts) 목사 역시 "결혼과 성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을 위해 중재된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여 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발리세움 OC세움 최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Calling), 고치(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자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s.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한국교회토요일 오전 9: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벘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대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전**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토요일) 오전 6:0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주일 9:30,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지영한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장모기도회 오전 9:00(토), 청년기도회 오전 9:00(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혁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매일 미지마 금요일) 일몰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토요일)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여부 오후 1:00, KM대청년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미지마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립하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겠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ia@gmail.com





# GRAND OPEN

올코샵 그랜드 오픈

KIDOK SHOP과 함께 합니다.

www.kidokshop.com

BEST SELLER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대한민국 1등 비타민, 75년 신뢰의 건강파트너입니다.

**고려은단**  
**미국 공식판매점**  
본 판매처의 제품은 올코샵이 보증하는  
**100% 정품입니다.**

한국인 영양에 딱!!  
**식습관이 다르면**  
**비타민도 달라져야죠**



**9년 연속**  
**대한민국**  
**1등 비타민**

기초건강  
항산화  
에너지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모두 한 알에 담았습니다.

**멀티비타민**  
비타민C와 섭취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리비스타 종아리 압박밴드**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BEST SELLER**

이제 주무르지 마세요  
1+1 혈액순환 개선, 혈류 촉진, 붓기 완화, 통증 완화

등이 펴지면 인생도 펴진다  
100% 국내생산

“바른 자세” 이렇게 쉬웠어?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슬림 바른자세 고정밴드 허리 등 목 고정기

지금부터 \$45 \$38

**하나사면 하나공짜** 슈에뜨와 함께 새해를 출발하세요

**녹는 콜라겐 마스크팩**  
슈에뜨에서 공개하는 첫번째 스페셜 아이템  
CHOUETTE 3초만에 흡수되는  
녹는 마스크 패치로 콜라겐과 비타민 충전!

1+1

초미세 흡수력 3초만에 흡수되는 5만 나노 하이퍼 패치  
식물성 비타민 C 1,000ppm 함유  
수용성 콜라겐 99.9% 인체 콜라겐과 유사한 수용성 콜라겐 간편하게 피부관리 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기독샵**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상담!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스캔하고 상담하기!

전화 상담 213-235-6663

www.kidokshop.com  
도소매 문의 환영

KIDOK SHOP Undergent RIVISTA SNOOZY SOCKS Sulwhasoo

공식판매처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공식판매처 CHARMZONE NC1

교회단체 행사선물 도소매 판매점 문의

erom

매장주소  
3055W.7th Street Los Angeles CA90005

강준민 칼럼

# 거목(巨木)은 흔들려도 고목(枯木)은 흔들리지 않는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거목(巨木)은 크지만 살아 있기에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고목(枯木), 즉 오래된 나무 중에 말라서 죽어버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면 죽은 것입니다. 거목이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은 까닭은 뿌리를 깊이 내린 까닭입니다. 나무의 중심은 뿌리입니다. 나무는 흔들리면서 거둬들임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게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거목은 거센 바람에 흔들리지않고 견고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거목이 생을 마감하면서 고목(枯木)으로 바뀌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목은 어느 순간 거센 바람이 불면 부러지거나 쓰러질 뿐입니다.

거목은 큰 인물을 상징합니다. 큰 인물도 거센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겉으로 보기

에 고요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은 흔들립니다. 다만 큰 인물은 오랜 풍파 중에 흔들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센 폭풍우와 폭염을 통과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센 인생의 시련이 그를 흔들 때마다 거둬들임 중심을 다잡고 성장을 거듭한 사람입니다.

크고 굵은 나무라고 늘 편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목은 좋은 햇빛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타는 듯한 폭염과 땅에서 멀어질수록 심해지는 건조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또한 태풍 같은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노출됩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부대깁니다.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이 끊일 날이 없음을 비유로 한 말입니다. 가끔 저를 아끼는 성도님들이 제가 인용한 옛말을 하시면서 위로한 분들이 있습니다. 크고 많다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강관교 교수는 "나무는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생각합니다. 또한 살아가고 살아낸다는 것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위대해 보입니다.

거목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 거목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두 거목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나무가 소중하듯이 모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다만 우리는 나무를 통해 조금씩을 내려놓고 오래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무는 서서히 자랍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빨리 자라는 듯이 보이는 대나무도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린 후에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한 중국의 대나무 가운데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중국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인 모소대나무는 씨앗에서 싹이 트고 농부가 정성을 들여도 4년간 고작 3cm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되고 주변은 뻥뻥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됩니다.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 기다림을 강조하고, 느림의 미학을 찬미하는 제가 어리석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며

과속하는 것들은 엄청난 비극을 언젠가는 초래하게 됩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을 꿈꾸지 마십시오.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환영하십시오. 고통을 선용하십시오.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을 통해 풍성하게 임합니다. 위대한 작품은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쉽게 탄생하지 않습니다. 거쳐야 할 모든 과정을 거치고, 치러야 할 충분한 대가를 치른 후에 위대한 작품은 완성됩니다.

나무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흔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부활의 꽃이 피었습니다. 부활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나무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흔들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뿌리내린 까닭에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안식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제가 나무를 통해 배우고 깨달은 교훈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봉주 칼럼

## One man vision 원맨 비전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현재 우리 감사한인교회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시애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K 선교사님은 처음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교를 시작하셨을 때,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현지인 집에 세들어 사시면서, 집 주인의 자녀에게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닐곱 가정을 전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8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두 각 지

역으로 흠어져, 교회를 개척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자비량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지 사역자들은 현재 목회를 잘 하고 있으며, 선교사님과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때마다 현지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날이어서 그분들을 만나 뵈 수 있었는데, 모두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 2-3시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습니다. 불교 우상으로 가득한 복음의 불모지에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져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장로님들과 함께 멕시코 동남부, 유카탄 주, 이자말이라는 선교지를 방문하였습니다. 30년 전, L 선교사님은 이자말에 가셨습니다. 30년 넘는 시간동안 선교사님께서 하신 사

역은 그저 현지인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그저 더불어 사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들에 집중하셨습니다. 걸어가다가 아저씨, 아주머니와 이야기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청소년들과 마주치면, 함께 게임도 하고,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냥 현지인들과 어울려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복음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2017년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오랜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BICA (Bethe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사립 중고등학교를 건립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멕시코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독교적 커리큘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학교의 교장과 행정처장이 누구인줄 아십니까? 바로 선교사

님께서 20-30년 전에 도움을 주며, 신앙적으로 교제해왔던 청소년들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노엘은 중학교 때 선교사님을 만났고, 학생처장 사울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현재는 이 두 청년이 학교를 헌신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지 지역교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원 맨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크리스천이 세워지면, 가정과 지역과 사회가 변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한 마을을 복음화 하는 선교사가 된다면, 만약 우리가 도운 누군가가 사람을 구하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복음으로 변화된 그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이라는 비전을 붙드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혜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웹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들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30년 사고방식 변화유연한 전문기술 보유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참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 살리는 외침의 사람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벌써 2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소식은 충격과 아픔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고 날씨가 추워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비탄과 원망의 소식도 넘쳐나고 있지만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외침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있는 276명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유라굴로 광풍이 비켜가지는 않았습니 다. 그렇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에 삼킴을 당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서 배 안의 사람들이 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남을 살리는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지진과 난리의 절망적인 소식에 쌓인다하더라도 내 가정을 살리는 외침의 사람, 직장과 사업을 일으키는 외침의 사람, 우리의 사회와 선교지를 살리는 외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왕으로 모신 우리들을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작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를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내 삶이 출발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외침이 될 수 있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새벽과 저녁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1차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팀의 간증들은 우리 모두의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속한 바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주님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설과 동화를 쓰는 이철환 씨가 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엮어 만든 책 “못난이 만두 이야기”에 나오는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파서 늘 배고픈 아이가 있었습니다. 만두 가게 아저씨는 이 아이가 지나갈 때쯤이면 일부러 놀려서 옆구리가 터진 못난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팔수도 없으니, 가져가서 먹어라.” 그렇게 배고픈 아이를 먹였습니다. 만두를 받아먹는 아이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도 돌보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로 하여금 “우리는 흠파서 장사 하나?”라는 말을 하지 않게 못난이 만두로 아내 마음도 살피주었습니다. 평생 만두를 만들어 파신 분에게 옆구리가 터진 못난이 만두는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멀쩡한 만두의 옆구리를 터뜨리는 작은 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외침이 되어졌다 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들도 사람을 살리는 외침으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준수 칼럼

### 54세가 되어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



이 준 수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  
영성문화사역팀장

나는 어릴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장애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홀로 걷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세수하고 목욕하는 것, 심지어 대소변을 보고 처리하는 것까지 일상의 거의 모든 것들을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피나는 노력(?)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늘었고, 특히 미국 유학을 오면서부터는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밖에 없어 거의 독립된 일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이 50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아주 사소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옷의 단추 끼기, 손톱, 발톱 깎기, 삶은 달걀 껍질 까기 등이다.

나는 손놀림이 어쭙어 상의의 단추를 구멍에 잘 꿰 수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티셔츠도 단추가 없는 라운드티를 즐겨 입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부터 아내는 라운드티를 입으면 애들 같이 유치해 보인 다며 보다 세련되고 중후한 멋(?)을 위해 칼라가 달린 티셔츠만 사주기 시작했다. 아내

말처럼 칼라가 달린 티셔츠를 입으니 훨씬 멋있긴 한데, 역시 단추 끼는 것이 몹시 어렵다.

아내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고 나 혼자 출근 준비를 하면 티셔츠 단추 2개 잡그는 데만 10분 이상이 소요된다. 어쭙은 손가락으로 조그만 단추를 잡는 것조차 어렵고 그 걸 작은 구멍에 밀어 넣자니 너무 힘들어 온 근육이 경직되고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구멍에 거의 다 밀어 넣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단추가 다시 풀리는 경우다. 이럴 땐 정말 푸념이 절로 나온다.

특히 겨울에 자켓이나 점퍼를 입을 땐 5-6개나 되는 단추를 간신히 다 끼웠는데 하나씩 밀려버려 다 풀고 다시 끼워야 하는 경우도 많다.^^ 덕분에 버스 시간을 놓쳐 사무실에 지각도 여러 번 했다. 단추를 끼기 어려우면 그냥 풀고 다니면 좋겠는데 나는 성격이 꼼꼼해 그렇게 단정치 못한 옷차림으로 밖에 나가는 건 싫다. 언젠가 글에서도 밝혔듯이 몸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데 성격은 결벽증이 의심될 정도로 깔끔하니 사는 게 피곤할 때가 참 많다.

단추를 끼기는 힘들어도 자주 시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데 비해, 손톱, 발톱 깎기는 이 나이가 되도록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유학을 와서는 기숙사에 함께 사는 한국 학생들에게 부탁을 하곤 했다. 그런데 손톱, 발톱까지 깎아 달래기가 너무 미안하고 자존심도 상해 아주 길 때까지 안 깎고 있다가 손톱이 부러지고 발등이 발톱에 긁혀 피가 나오기도 했다.

또 기숙사 학생들도 어떤 사람은 길게 깎아주고 다른 사람은 바짝 깎아주는 등 취향이 제 각각이었다. 차라리 네일샵에 가서 다듬어달라고 하면 모양도 예쁘고 훨씬 편했을 텐데 그땐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결혼한 후에는 아내가 손톱, 발톱을 깎아 주는데 “나처럼 엄청 예쁘고 전문적인 간호사가 서비스해주시 자긴 얼마나 행복해? 영광으로 알아~” “수고비로 100불은 줘야 할 거야~” 하며 온갖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낸다.^^ 또 손톱을 순서대로 깎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이 손가락, 저 손가락 깎는 것도 참 재밌다. 나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있어 커버해주시 참 감사할 따름이다.

삶은 달걀의 껍질을 까는 것 역시 나에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손이 말을 잘 안 들어 껍질만 까는 게 아니라 그 안의 흰자도 모두 부셔버리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도 냄비에 삶은 달걀 2개가 있길래 먹으려고 껍질을 까려는데 너무 단단히 붙어 있어 결국 흰자까지 다 으개지고 달걀 노른자만 먹었다. 나중에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니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긴 공부 빼놓고 잘 하는 게 하나도 없어~”라며 무척 불쌍해 했다.

이처럼 50대 중반을 훨씬 넘겼는데도 난 여전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 예전에는 장애인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내가 못하는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감추고 잘하는 것들만 내세우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 나의 약점,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도 애정이 가고 이런 것들에 좀 더 정직하고 의연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바울 사

도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잘난 면보다는 좀 어설피고 부족한 면, 꾸밈없는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욱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내 경우에도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나를 자꾸 왕따시키고 사사건건 괴롭혀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몸이 불편한데도 공부를 제법 하니 그게 거역이 났던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일부러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달라고 하고 도시락 뚜껑도 열어달라고 하는 등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 하고 집까지 초대해 속 깊은 얘기를 나누니 오히려 풀리고 서로 돌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

자신을 낮춰 남을 높이는 겸손, 아프고 부끄러운 것이라도 당당히 드러내는 솔직함 이야말로 보다 견고하고 풍성한 인간관계를 이끌어내는 지름길인 것이다.

현재 장애인으로서 나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참담’하고, 미래의 내 모습을 바라봐도 ‘암담’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런 참담과 암담이 ‘담담’으로 바뀐다. 또 더 나아가 담담함이 ‘당당함’으로 업그레이드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이다. 나 역시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잘 하는 것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훨씬 더 늘어날 텐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기 보다는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사랑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사람들에게도 보다 진실되고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가야겠다는 다짐을 하여 본다.

## 담임(동사)목사 청빙공고

시카고 언약장로교회는 일리노이 주 시카고 북부 글렌뷰에 위치한 미국장로교단 PC(USA)에 소속된 교회로, 한국어(KM)와 영어권 차세대(EM)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실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요건

1. 미국 PC(USA) 교단 소속이거나 PC(USA) 가입이 가능한 분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 받은 분
3.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
4.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와 목회활동이 가능한 분
5. 목회 경력(Full Time)이 5년 이상인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사진 첨부)
  2. 목사 안수 증명서
  3. 학부 및 신학대학원 (M.Div) 졸업증명서
  4. 본인, 배우자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5. 신앙고백서 (chicagocovenant.org에서 download)
  6. 신앙 및 목회 경험 기록서 (chicagocovenant.org에서 download)
  7. 추천서 2부 이상 (추천인 전화번호와 e-mail 첨부)
  8. 최근 6개월 이내의 한국어 설교 (2편) 및 영어 설교 (1편) (동영상 file이나 website link)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제출 기한 : 2023년 4월 15일(토)까지

#### 제출 방법

- E-mail : nominatingcommittee.ccp@gmail.com
- 주소: Chicago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Attn: Elder Hyo Sup Kwon  
1424 Greenwood Road, Glenview, IL 60025,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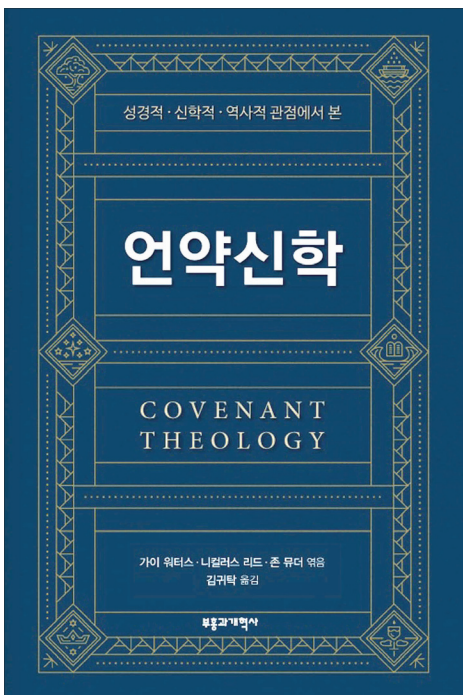
#### 참고 사항

- 교회 홈 페이지 [www.chicagocovenant.org](http://www.chicagocovenant.org)
- 문의 사항은 E-Mail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 청빙되신 목사님께서서는 현 담임목사님의 목회관계 해소 시까지 동사무사님(2개월 이내)으로 사역하신 후 담임목사님으로 사역하시게 됩니다.

####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청빙위원회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성경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언약의 은혜

# 언약신학이 중요한 네 가지 이유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본 언약신학  
가이 워터스, 니컬러스 리드, 존 뮤더 | 김귀탁 역  
부흥과개혁사 | 911쪽

## 개혁과 신학은 언약신학이다

언약을 만드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성도는 여간해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성경이 너무도 명확하게 '언약'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통해 자기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제정하셨다(눅 22:20). '새 언약'은 이전에 아담을 시작으로 다윗까지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 언약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인류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도 언약은 있었고, 인류가 최종적으로 거주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새 언약의 효력이 영원히 발휘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911쪽의 방대한 <언약신학> 연구서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이 책의 '맺음말'을 기고한 케빈 드영은 "언약신학은 낱집 뒤에 스케치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다"

고 말하고 나서, 언약신학이 중요한 네 가지 이유를 이렇게 제시했다. ①웅장한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한다 ②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 ③우리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④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방법을 제공한다(864-865쪽).

특히 가이 워터스와 니컬러스 리드, 존 뮤더가 엮은 <언약신학>은 '성경적·신학적·역사적 관점에서 본 언약신학'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성경적으로 더 깊이 알 때, 신학적으로 더 견고하게 배울 때, 역사적으로 더 분명하게 확신할 때, 우리는 언약신학이 주는 유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편집자들은 리폼드 신학교 교수 노먼 하퍼의 말을 빌려, 은혜 언약 교리를 강조하지 않고 심지어 언약신학의 가치를 의심하는 개혁파 진영의 어떤 이들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언약신학은 철저히 성경 본문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며, 역사적인 지지를 받고, 종말에 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한다. 모든 신자가 고백해야 할 신앙고백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최상으로 높이며, 매우 실천적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1부에서는 성경의 언약들을 주석적으로 접근해 창세 전 맺은 구속 언약,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행위 언약, 아담과 맺은 은혜 언약, 노아·아브라함·모세·다윗과 맺은 은혜 언약, 대선지서, 복음서, 바울서신, 히브리서, 요한서신과 계시록에 나타난 언약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언약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중세,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이후, 네덜란드 개혁파와 칼 바르트, 토머스 토런스, 제임스 토런스의 언약신학 그리고 최근의 언약신학을 전개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언약을 둘러싼 여러 부차적이고 신학적인 연구들을 다룬다. 가령 언약의 고대 근동 배경, 제2성전 시대 유대교, 세대주의, 새언약신학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존 뮤더는 '언약에 대한 반성을 위한 참고문헌'으로 방대하고 분석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언약주의와 세대주의는 서로 다른 성경 해석 체계를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둘 다 '문자적' 해석(역사적-문법적 성경 해석)을 견지하지만, 언약주의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세대주의는 구속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지만,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감안해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각각 약속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성경을 해석한다.



기상청에서 촬영한 서울 상공 쌍무지개 모습. 노아의 홍수 이후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이 됐다.

절친인 R. C. 스프로울과 존 맥아더 목사는 각각 언약주의와 세대주의를 대표하는 목사이자 신학자이지만, 둘 다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복음주의 교회의 핵심 인도자이다.

어떤 면에서 한국은 언약주의와 그세대주의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대주의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목사나 신학자가 있고, 종말론이 다르면 종말론 아닌 다른 주제로 아무리 성경적으로 바르고 유익한 책을 써도 번역하지 않는 출판사도 있다.

명백히 다른 진영에 있는 존 파이퍼 목사와 존 맥아더 목사가 함께 콘퍼런스 강사로

'청교도 신학'을 가르치는 미국 복음주의 교회와 많이 다른 분위기이다.

'우리'라는 한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아름다운 언약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오히려 그 '언약' 밖으로 다른 분별을 가진 이들을 밀어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할 두 진영의 성도가 우주적인 측면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 관점과 상관없이 <언약신학>의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책의 짧은 추천 글을 남긴 조엘 비키가 말한 것처럼, "개혁과 신학은 곧 언약신학이라고 알려졌다. 언약이 성경의 교리와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계시를 조직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책을 정독하고 자기의 것으로 잘 소화한다면, 성경의 모든 계시를 조직하는 원리를 발견하고 어떤 성경 교리나 주제를 다루든지 언약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목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9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ISAIAH 55:9

2023. 1. 4. H

#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글루코산 아연 + 크롬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증자추출물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망막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기간 인체에 머물러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연니버스' <정이>(1)

# 넷플릭스 <정이> 속 과학기술, 기독교 관점에서 본다면

익숙한 듯 참신한 한국 SF 작품  
부차적 서사 요소 더 집중 경향  
대중문화, 트랜스휴머니즘 확립  
영지주의와 연금술 목적과 비숫

◆대중문화 속 인공지능: 장르문학화된 한국 대중문화의 서사적 문법을 따른 영화 <정이>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정이>의 서사는 강인공지능 휴머노이드와 마인드 트랜스퍼(mind transfer), 즉 정신 전송 기술을 중심에 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식상한 소재일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종류의 작품들이 이미 무수하게 존재하고 있다. 1968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발표한 이후 인공지능은 영화, 드라마의 확고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중은 인공지능이라는 소재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다. 1995년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가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인공지능 로봇과 정신 전송이라는 소재,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라는 주제는 생소하고 획기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2023년 지금은 강인공지능, 정신 전송,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재고라는 주제의식이 익숙하다 못해 식상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인공지능 관련 작품들은 서사의 부차적 요소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영화 <정이> 역시 마찬가지다. <정이>의 강점은 영화 전체에 딱 들어차 있는 오마주이다. 이 영화는 설정부터 세부 장면까지 모두 유명한 SF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요소들을 차용해 조합하고 있다.

인류가 지구 환경 위기를 피해 이주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스페이스 콜로니인 헬터와 이 헬터들 간의 전쟁은 <기동전사 건담>의 우주세기 설정을 연상시킨다. 죽은 인간의 정신을 새로운 신체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에 복제해서 옮기는 방법,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의 복장과 전투 방식은 미국의 사

이버펍크 소설과 드라마 <얼터드 카본>과 흡사하다.

인공지능 로봇 기업이 작품 주무대이고 이 무대 안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이 서사의 줄기를 이룬다는 점은 <아이 로봇>과 일치한다. 그 외에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웨스트월드>의 설정이나 장면 에 대한 오마주 역시 작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영화는 SF 작품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참신하다. 비슷한 주제의 영화, 애니메이션 속에서 한 번쯤 본 적 있는 설정과 장면들이 하나로 집약되어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미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의 설정, 소재, 장면들을 끌어다 쓰면서 소소한 변화를 주는 서사 전개 방식은 최근 한국 대중문화계의 안정 지향 풍토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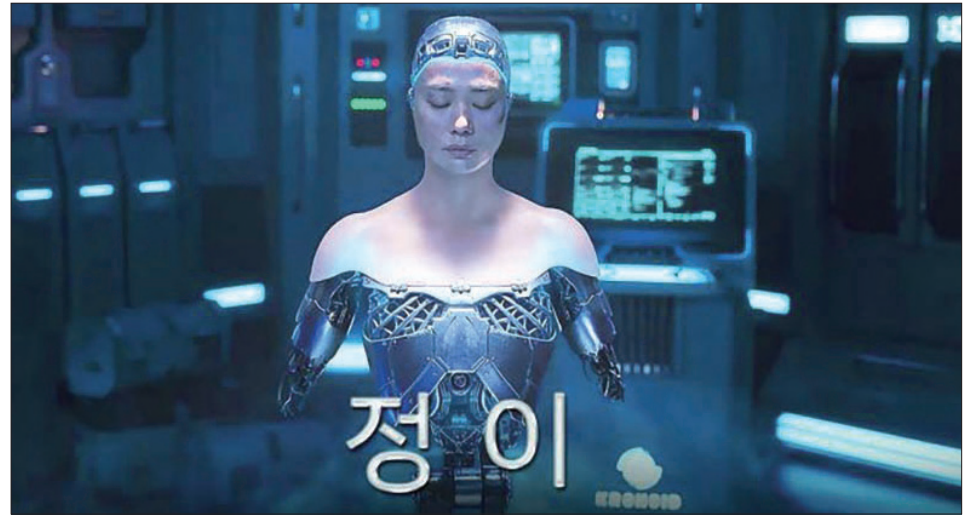
이런 흐름은 한국 대중문화계 전반의 장르 문학화라고 성격규정할 수 있다. 영미권 판타지, SF 소설과 일본 라이트노벨에 깊게 영향받은 한국 장르문학은 이른바 '공장식' 창작법이라는 특이한 전통을 갖고 있다.

과거 한국 만화방에서 인기를 끌었던 양판형 만화나 무협지, 로맨스 소설을 보면 한 팀의 작가들이 서사 구조와 캐릭터는 그대로 둔 채 설정과 세부요소만 조금씩 바꿔 공장에서 기성품을 대량생산하듯 작품을 빠르게 만들어내곤 했다.

◆대중문화 속 트랜스휴머니즘: 고대의 영지주의, 중세의 연금술, 오늘날의 트랜스휴머니즘

오늘날 한국 장르문학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다. 물론 예전 양판형 만화나 무협지가 팀 작업을 통해 제작되던 것과 달리, 최근 한국 장르소설들은 대부분 한 사람의 작가가 집필한다. 하지만 작가들이 기존 대중들에게 익숙해진 서사 구조와 캐릭터를 채택해 세부 설정과 서사요소만 바꿔가며 빠르게 작품을 완성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한국의 양판형 만화나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영화 <정이> 역시 이런 제작방식을 따른다. 그래서 작품의 실험성과 창의성은 떨어지지만 흥행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 대중에게 익숙한 서사요소를 조합하는 방식이 심하게 조악하지 않는 한, 이런 방식으로 제작되는 작품들은 일정한 수준의 흥행성적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와 정신 전송 기술을 소재로 삼은 영화, <정이>.

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한국 대중문화계 전반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을 고수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해도, 기존 기술을 기발하게 조합하고 가공해서 그러저럭 불만한 작품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에서 인공지능 로봇 및 정신전송과 관련된 영화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곧 세계 대중문화계가 인공지능과 관련해 하나의 확고한 주제의식 혹은 의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의도는 바로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이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을 개조해 기존 인류가 가지고 있던 신체적·정신적 약점들을 극복하려는 일련의 인간이해 방식을 말한다.

근래 트랜스휴머니즘의 태동은 서구에서 기독교 문화전통의 약화와 연관되어 있다. 과거 인간을 개조해 신체능력을 향상시키고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 혹은 인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모두 비기독교적 사상 배경을 갖고 있었다. 유럽에서 중세부터 근대 초기까지 융성했던 연금술은 고대 영지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영지주의는 인간에게 감추어진 만물의 존재 원리를 종교와 철학의 힘을 빌려 엿보려는 시도를 통칭한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신비주의와 철학이 기묘하게 결합된 방식으로 발전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교부들은 영지주의의 교회 내 유입을 철저히 막으려 했으나, 중세로 넘어와 가톨릭 신학이 혼탁해지면서 영지주의 전통은 기독교 문화와 기묘하게 뒤섞이며 존속할 수 있었다.

존재의 신비를 파헤치려는 영지주의가 연금술과 결합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값어치없는 물질로부터 금을 뽑아내려는 시도, 연금술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발전한 기술이 아니다.

인류는 금이 고대로부터 가장 희소하며 완전한 물질이라고 믿었다. 연금술로 금을 만

들어낸다는 것은 곧 존재의 신비를 파헤친 깨달음의 증거였다.

르네상스 시기의 저명한 연금술사 파라켈소스(1493-1541)를 비롯한 근대 초기 연금술사들은 불완전한 물질에서 완전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면 인간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술, 즉 호문쿨루스(homunculus) 제작 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호문쿨루스는 단순히 작은 인간이 아니라,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세계의 존재 원리를 체득한 완벽한 지성을 가진 인간을 말한다.

기독교 신앙과 문화가 서구 사람들의 의식 전반을 지배하던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호문쿨루스 창조에 대한 전망과 기대감은 하나님의 섭리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연금술과 호문쿨루스 사상은 자연과학에 한 발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기독교 문화와 공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구 기독교 사회는 여전히 인간을 창조하고 강화하려는 사상이 비기독교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도 이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의 결말이 그토록 비극적인 것은 인간을 개조하고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비인간적 처사라는 당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 <정이>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대중문화 작가와 제작자들은 인간의 개조, 강화 시도를 그리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정이>에서 뇌사 상태가 된 어머니를 인공지능 로봇으로 복제하려는 윤서현(강수연 분)의 시도는 결국 어머니의 모성과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는 인간미 넘치는 결말로 귀결된다.

<정이>의 결말은 오늘날 대중문화계에서 점차 영향력을 증대해 나가고 있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준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트랜스휴머니즘을 반영하는 영화, <정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귀국자동차 운송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타주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사무실, 공장 이사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해외이사**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중국, 일본, 남미
- 초 저가 차량 운송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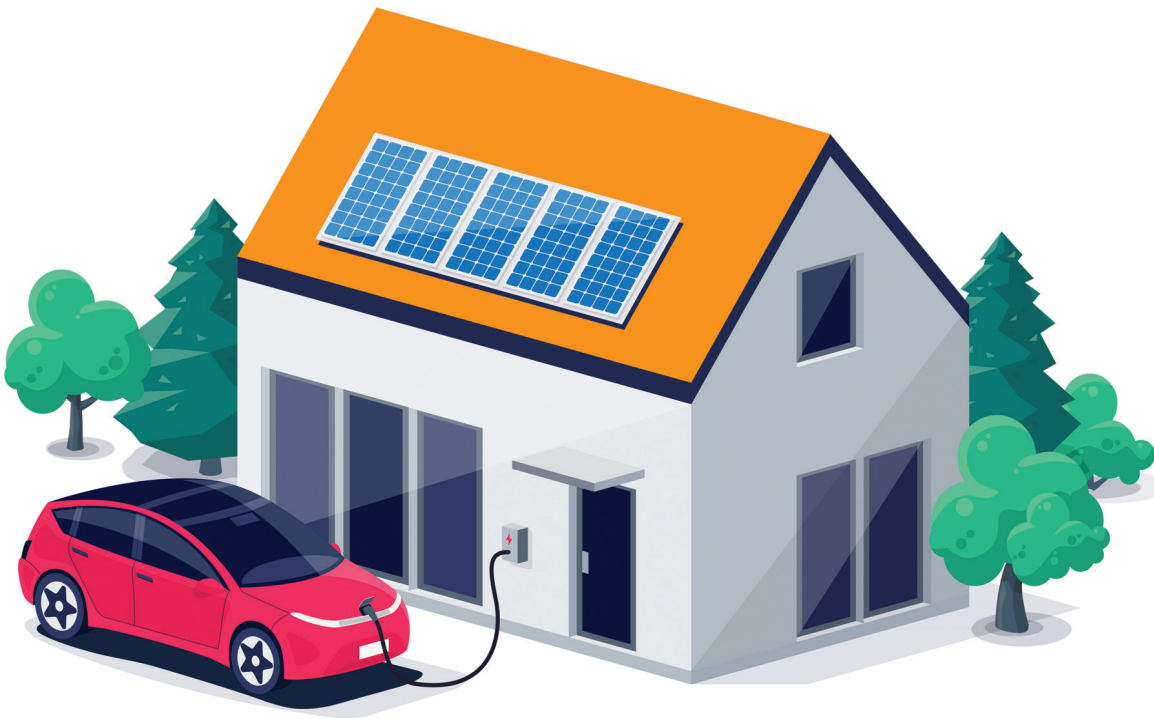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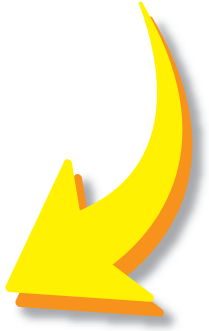
#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전기세가  
11달러?!**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전기세는 내려가고
-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고
- Tax Credit 까지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덤으로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70~8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전기세 ~~30%~50%~~ **70%~80% 절감효과**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1st Payment은 설치 후 바로 **1년 후 부터**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남가주 전 지역 **1~2달 안에 설치 가능**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 빨리 설치할 수록 많이 절약합니다 \*\*\***

BTSSolar

**BTS 솔라 디자인  
213.500.8000**

-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